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 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 (02) 783-0071~2 F: (02) 783-0073



열린 새 천년... 다시 영광을 위하여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은 국내외 용마가족들은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전통·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더욱 확산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다시 영광을 창출하기 위해 ...

이 새해 축하(祝賀)는 서울의 이무영 동문(17회)의 작품으로, 2000년 용마가족들이 모교의 건학정신을 안고 찬란한 태양 아래 똬를 일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동문은 한양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인 대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자문위원, 미국 LA 앨앤에스 건축대표이며 지난해 한국 앨앤에스 건축사를 설립했다.

신년사



정소영
본부회장/제6회

새 천년—새 세기의 스타트 라인 2000년이 열렸다. 내실의 삶과 보람,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고 성공을 예감하지만 시련과 도전의 파고를 간과할 수 없으며 실망을 예감하기도 한다.

21세기는 공존의 세기, 정보·문화·인간존중의 세기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용마가족들은 공동체의식을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 등 지식산업을 요체로 하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디지털평등시대를 헤쳐나가야 하고, 숭고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남은 의식과 관행을 타파해야 하는 문화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특히 창조적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인간존중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바탕 위에서 '질 높은 생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명제들이 새 세기의 키워드라는 점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진솔하고 귀중하게 그리고 사랑과 신뢰로써 유지되지 않으면 '상호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용마가족도 이같은 시대적 여망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 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용마정신'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존과 화합'의 복을 다시 힘차게 울려 걸립을 이끌어내야 한다. 명예로운 전통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기본을 공고히 정립해야 한다.

공존과 화합은 '나' 또는 '너'가

아닌 '우리'로, '나의 일' 또는 '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동력화(動力化)할 때 가능하다. 특히 '용마호'를 같이 타고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애'로 유대된 동반자라는 인식대를 더욱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갈등과 편파주의, 독선과 편의주의, 야집과 소영옹주의를 용해시킨다.

용마가족 여러분 개개인이 주인인 우리 동창회는 이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거대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고 '용마역량'을 세계로 뻗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새나 짐승이 죽을 때, 그 음성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하는 말은 착하다'라고 했다. 세상 만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게 마련이다. 초목도 썩어있을 때 있고 왕성하게 자랄 때도 있으나, 말라 죽을 때도 있는 것이다. 말라 죽더라도 이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 새싹을 잉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용마가족도 IMF한파에 휩쓸려 최근 몇 년 사이 슬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야 했고 시대고(時代苦)의 파고에 휩쓸려 견제력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치열한 도전들을 '용마정신'으로 응전, 복원을 위한 조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후배 간 우정과 사랑으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동문을 위한 길이며 동창회를 위한 길인가를 통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이다.

“ 화합이 뜻을 울리자 ”

2월11일 회장선출 定總 개최

“즐겁고 정 넘치는 ‘젊은 동창회’ 구축에 적극 동참을”

본부동창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는 제37차 정기총회를 오는 2월11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한 2000년 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1월7일 본부 사무국에서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 조직활성화를 촉진하는 새해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밝힌 운영방향은 변화와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요구되는 새 천년의 시대정신과 용마가족의 여망을 구현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같은 운영방향에 따르면 본부는 2월11일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을 개선, 조직활성화와 유대강화에 전력하는 새 집행부를 구성해 '활력 넘치는

본부 새해 운영방향 발표
각종 행사 질적 향상 도모
용마대동제 등 계획안 준비
지역회간 협력·교류 확충
2~3월 중 총명부 발간

젊은 동창회'로 거듭나기로 했다. 또 항상 즐겁고 정이 넘치는 동창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과 행사를 개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예산 확보 등 문제로 유보돼왔던 용마대동제와 기별대향 등산 및 바둑대회를 실현시킬 추진안

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부와 국내외 지역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교류 확충에도 집행부 역량을 발휘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될 주요사업과 행사는 △용마장학회 이사회(1월9일) △결산이사회(1월 28일) △신년회 겸 정기총회·임원 개선(2월11일) △총명부 발간(2~3월 중) △홍커밍데이 행사(4월 하순~5월 초순) △기별대향골프대회(5월 초순) △기별대향 테니스대회(5월 하순) △기별대향 낚시대회(6월 중) △이사회(9월 초순) △기별대향 야구대회(9월 하순~10월 하순) △바둑 및 등산대회(10월 하순·계획) △이사회(11월 초순) △용마의 밤 축제(12월 초순) 등이다.

새 천년 용마인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 남 학 원

원장 金根俊(1회) (동창회 교문)

부산시 서구 사대신동2가(지하철 동대신동역 옆)
(상 담 실) 253-5591, 247-1774
(단과교무실) 256-6976, 253-1467
(서무) 253-5342, (FAX) 253-4223

33년을 이어 온 전통!
새 천년의 선택!



2000년도 종합반 학생 모집 안내		개강: 3월 2일(목)
大入 주간 종합반(특별반·일반반)		大入 야간 종합반 및 단과반
수능 준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반—명문대 인기 학과 지망생 ○ 일반반—일반대, 예·체능계, 전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인 高3(인문, 실업계) 재학생 및 졸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을 30~70점 이상 학력을 신장시킬 것을 목표로 함. • 주당 수업 지수를 39~43단위(매일 7~8교시)로 하고 수강료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인하할 것임. • 각종 장학제도 있음. ※ 특히 후배 동문의 성적 신장과 생활관리를 성심껏 돌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高3(인문, 실업계) 재학생 및 졸업생 } • 수업시간: 오후 6시 50분부터 4시간 수업 (월~금) • 기초부터 상세하게 대비함 * 중학생 단과, 고교생 주말반(土, 日) 운영 주중반(月~金) 	

권오현(1회)

부산시 체육회 고문 추대



권오현(1회·경성대 재단 이사장) 본부고문은 구랍 1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부산시 체육회 제11차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특히 권고문은 이날 지난 25년간 부산의 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공로패를 받았다.

부산일보 사장 등을 역임한 권고문은 73년부터 98년까지 시 체육회 상임이사 및 상임부회장, 시 축구·태권도·체조협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위원회 수석부회장, 동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구본홍(20회)

관훈클럽 총무 선임



구본홍 동문(20회·문화방송 정치담당 해설위원·사진)은 구랍 20일 관훈클럽 총무에 선임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구 동문은 MBC 보도국 정치부 등 기자 정치부장 기획위원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구 동문은 관훈클럽 총무 취임 후 첫 행사로 1월1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관훈클럽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제17회 관훈연론상 및 제11회 최병우 기자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주관한다.

제18회 회보 6호 펴내

제18회동기회 회보 '18번지(6통4반)친구들' 제6호가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동기회 송년회 및 본부 용마의 밤 행사 개최 △고적답사 여행 등이 게재됐다. 또 △자녀 결혼 및 동문 조사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동문 소식 △허태열 동문 후원회 2차 모임 △희비남부자 명단 △울산회 동문 연락처 등이 실렸다.

이종희 '골든볼' 영광

일오골프회 송년대회

제15회 일오골프회 송년대회가 구랍 26일 경남 양산 통도 C.C에서 열려 이종희 동문이 우승을 차지, 정기문 동기회장이 기증한 '골든볼'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이종희 △준우승 김창영 △3위 손재형 △니어리스트 강재모 △롱게스트 김승일 △행운상 김정환 △메달리스트 손부홍.

平等의 기회 위해 전진하는 龍馬人

눈부시어 눈을 뜰 수 없는
햇빛이 쏟아져 꽃술마다 엉키고
달빛은 진흙을 은은하게 내리었다.

새 천년 축시

화합하는 사랑의 물보라

김대식

그 축복받은 날부터
이 아름다운 龍馬의
터전하나 있었거니

우람한 산맥이 기둥 바쳐
평원으로 열려지는 곳.

먼 태평양 바다의 물결이
동에서 서로 굽이 돌아 쉬어 가는 곳.
사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밝은 햇빛이 누리 지은 우리의
보금자리 慶南中高

시인인 김대식 동문(32회)은 현재 동서대 교수이며, 일본 교토오타니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산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 동문은 시집 '까굴가에서 I·II'와 '기꺼이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등을 펴냈다.

그 터전에서 잠이 깬 날은
우리들 세상

멀리서 저 멀리서
새천년의 빛을 받아

오대양 육대주 평화의 광장에서
평등의 기회를 빼앗김 없이 누리려
전진하는 龍馬人

희생과 봉사의 땀방울을
먹으며 키워온 우리들의 和음은
알알이 영글어 재 빛을 발하는
알곡되어
만남의 기쁨으로 화합하는
사랑의 물보라

본부 3차 이사회 개최

'용마의 밤' 계획안 심의
기별야구대회 결과 보고

본부동창회 99년 제3차 이사회가 구랍 3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O/T 본부회관 14층 '골든뷔페'에서 열렸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 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20세기 마지막 축제인 '용마의 밤' 행사 계획안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용마의 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2월20일 오후 6시30분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고 △원로기수인 김상국 동문(6회) 등 연에게 동문들을 초청, 쇼프로 진행 등을 맡기며 △경남고 음악부 출신 다솜중창단(40명·창단 11년)을 특별 출연시키기로 했다.

또 제31회 기별야구대회 및 입상자(단체 우승 제24회·준우승 제38회·MVP 24회 장한중 동문 등) 결과보고가 있었다.



구랍 12일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뷔페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 장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은 이창근 조석계 이현문 홍기성 김형벽 손세일 지창수 배주원 김진석 동문이 특별 찬조했다.

새 회장에 이충원(29회)

경야회 새 집행부 출범



경야회(모교 야구부 출신 부산지역 동문 모임)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뷔페관'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이충원 동문(29회·PSB연예사업단 이사·사진)을 선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날 총회는 △조직 활성화 △사무실 독자 운영(전화 557-5339·팩스 557-4866) △OB-YB 대항전 진행 협조 △회원 명부 제작 등을 결의했다. 이날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이날 총회는 △조직 활성화 △사무실 독자 운영(전화 557-5339·팩스 557-4866) △OB-YB 대항전 진행 협조 △회원 명부 제작 등을 결의했다. 이날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고문: 김근준(1회) 최창호(15회) 박문규(16회) 정연희(17회) 이웅규 이민성(이상 22회) 김두천(26회) 배기용(27회) 김용희(28회)

△이사: 임규영(30회) 배정호(31회) 정문중(35회) 이종운(39회) 김용철(40회) 문영찬(43회)

△회장: 이충원(29회)
△부회장: 박상국(33회)
△수석총무: 김한조(34회)
△총무: 서동천(36회) 김용표(40회).

용건회, 회보 14호 발간



부산지역 건설업 관련 동문 모임인 용건회(龍建會)는 회보14호를 구랍 10일자로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박봉흠 회장(11회)의 인사말을 비롯, 국회의원인 권철현(19회) 박종용 동문(25회)의 축사, 강종원 동문(16회·지원건설경

영건설링 대표)의 논단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 회칙 및 회원동정 등으로 꾸며져 있다.

한편 용건회는 1월13일 오후 6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뉴그랜드호텔 뷔페관에서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경8회 임원 개선

전영배 신입회장에

제8회재경동기회는 구랍 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일품'에서 99정기총회를 열고 전영배

동문(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창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부부동반 47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을 뽑았고 감사인 박기홍 조운제 동문을 유임시켰다.

배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력하나마 성의를 다해 모임이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하고, 동기회 결속과 친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주원 동문의 사회로 2부 여흥은 사회자의 만담과 익살로 즐거운

경남 중·고교 김해지역동창회



발 전

- 고 문
박석만(4회) 오동환(7회)
구본섭(8회) 박당희(9회)
조성진(10회) 강진평(10회)
김금찬(11회)
회 장
최태환(13회)
부 회 장
박세갑(15회) 김영우(19회)
김영학(31회)

- 총 무
이광희(30회)
재 무
박중철(33회)
감 사
박명진(33회) 도창호(35회)
이 사
윤진환(9회) 윤일명(9회)
최해만(10회) 정한형(14회)
이철웅(15회) 권복술(16회)

- 권오영(17회) 김문호(27회)
박광수(29회) 양문성(32회)
안병남(35회) 도효진(37회)

<사무소>

김해시 동상동 1038-2 동상동민
회관 2층
Tel : (0525)338-4477
Fax : (0525)332-6858



환호... 감동... 한 마음 한 뜻

구립 20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본부 99용마의 밤 광경. 국내외 동문 1200여명이 운집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감동 분출... "군계 뭉쳐 다시 뛰자"

20세기 마지막 '99용마의 밤' 축제가 국내외 1200여 용마들이 분출한 감동과 열정으로 용광로처럼 끓어 올랐다. 구립 20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호텔롯데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막을 올린 동창회 최대 이벤트인 용마의 밤 축제는 초만원에 이른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페스티벌로 펼쳐졌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개막 인사말을 통해 "새 천년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군계 뭉쳐 다시 뛰자"고 말했다.

육윤석 동문(16회·경총회 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조대제 수석부회장) 99기별 야구대회 시상(우승 24회) 제46회 동기회기수여 회장인사 축배(송두호 고문 선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 '99용마의 밤' 축제

국내외 1200여명 운집
축시 '용마의 비상'메아리쳐
노래·장기 자랑 '시름'털고
최대참가상 제11회 수상
행운대상 김무광 동문(16회)

기념식에 앞서 고문(송두호·3회)과 회장단(정회장을 비롯, 조대제·7회, 박동렬·8회, 정행권·9회, 오강욱·10회, 문정수·12회, 김광일·12회, 김형오·20회, 박종용 부회장·25회) 등을 소개했다.

특히 재경동창회의 김경희 고문(9회) 김성규 회장(11회) 김영해 사무국장(23회) 김순규 총무(26회) 등과 지역 회장단 및 주요 동문이 소개

되어 환영을 받았다.

2부 페스티벌은 한현호 사회로 막이 올랐다. 먼저 축시 '용마의 비상'(김중하·11회·부산대 교수 작)이 이영숙씨(부산문화방송 PD) 낭송으로 용마들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미이크 나들이'(문정수 전부산시장·12회, 정진화 구포여중 교감·13회 등 인터뷰), 경남고 재학생(3-6) 김대준 군의 힙합 공연과 최용호 동문(46회·동아대 성악과 4년)의 축하 등이 이채를 띠었다.

노래자랑은 김상국(6회·가수) 이동희(예명 남광수·11회·전 한국가수분과위원장) 육윤석(16회) 윤민근(19회) 최병철 동문(20회) 등이 출연했다.

특히 동문들이 입장할 때 출연한 특찬금(1인 1만원)은 모두 433만원이었고, 참가자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또 참가상 1위는 제11회(57명·상금 30만원), 2위는 제6회(45명·상금 20만원), 3위는 제33회(44명·상금 10만원)가 각각 수상했다.

행운상 추첨에서 대상은 김무광(16회·33인치 칼라 TV), 금상은 정진화(13회·대형 냉장고), 은상은 김효민 동문(11회·비디오) 등이 차지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전대통령인 김영삼 본부고문(3회)과 부산중고동창회(회장 안건일) 경남상고동창회(회장 최달천) 동아고동창회(회장 김신재) 동래고동창회(회장 양철모) 등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 주었다.



구립 11일 경남고 구장에서 OB-YB 야구대회가 열려 경야회 선후배 동문들이 우정을 나눴다.

YB '힐힐'... OB '빌빌'...

경야회 선후배 친선 야구대회 ... 9-3 상호 "만족"

경야회(모교 야구부 출신 부산지역 동문 모임) 99 OB-YB대항 야구대회가 구립 11일 오후 1시 경남고 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OB측은 전임 회장단을 비롯해 60여명, YB측은 30여명이 참석했다(롯데 선수 9명 포함). 특히 행사에는 본부의 김병수 총무(22회), 총무단협의회 육윤석 간사장(16회)등이 특별초청됐다.

OB팀은 1회초 선두타자 박보현(45회·롯데)이 장외홈런을 날려 1점을 먼저 얻고 박현승(45회) 박석진(45회) 정진식(44회·이상 롯데)으로 이어져 맹공했으나 득점을 놓쳤다. OB팀은 6, 9회 각 1점씩을 올려 3점으로 마무리했다.

반격에 나선 YB팀은 1, 2회말 각 2, 3점을 얻고 7, 9회 각 2점씩을 보태 9-3으로 OB팀을 따돌렸다.

이날 OB 투수로는 임경완(48회)·이정민(52회·이상 롯데)·정진식·송승준(53회·메이저리그) 박보현 등이, YB투수로는 양정모·윤성학·윤성기 등이 활약했다.

또 홈런은 박보현·정진식(이상 OB) 이대호(YB·2년), 2루타는 박현승·이민정(이상 OB), 강대현(1년), 조성수(2년), 박정준(신입생), 고윤성(2년·이상 YB), 3루타는 유희상(1년·YB)이 기록을 세웠다.

경기가 끝난 후 양팀 선수들은 학교 야구부 식당에서 단합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東慶會 '우정의 티샷'

도쿄지역 골프대회 ... 우승 박영수(29회) 차지

동경회(東慶會·일본도쿄지역동창회) 골프대회(사진)가 지난해 11월14일 일본 도쿄 근교 栃木懸 矢板 C.C에서 열려 박영수 동문(29회)이 95타(신고핸디 23)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8명의 골퍼가 참석, 김광신(16회) 회장의 "즐거운 마음으로 기량을 발휘해 달라"는 인사말에 이어 라운딩에 들어갔다.

이종명 골프회장(19회)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를 주재한 이날 라운딩에서 준우승은 정규홍(30회), BG 박영수, DC 김지창(23회) 정규홍, NP 이종명 동문 등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박영수 동문이 우승한 것은 '어부지리(漁父之利)' 티. 강력한 우승후보인 김대욱(18회) 이종명 부회장이 같은 조에서 우승을 다투다 김지창 동문의 견



제에 걸려 전반에 경제적인 골프로 시종하다 후반에 만회를 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꼴이 됐다.

한편 이날 집행부는 모임의 공식핸디가 없던 관계로 본인의 양심에 따른 핸디신고를 접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핸디를 정하기로 했다.



새 希望의 葉원을 담은 새 千年이 열렸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 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龍馬들의 氣魄과 情熱도 뜨겁게 타 오를 것입니다.
새 千年의 同窓會 새 출발을 위하여
龍馬 二七도 더불어 함께 精進할 것입니다.

제27회 동기회 (회장 金泰佑) 일동

새천년 테마기획 / 동창회 활성화·유대강화 촉진을 위한 처방

管鮑之交 정신 살려 '共存' 확산을



장혁표

제8회
부산대 교수·전총장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과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였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양식이 형성되었다. 자기식의 보고 듣고 반응하는 방식이 생겨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접촉한 많은 것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깝하게 된다. 가장 기초적인 습관은 역시 가정이다. 그리고 어린시절 아울러 놀았던 동네 친구들과의 사귀어였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친구의 수도 즐고 대상도 정선된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귀어 내용과 질이 변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전통(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행동 경향성)이 부지부식간에 영향을 받게 한다.

그래서 동료의식이 생겨나고 공감대 형성의 갖가지 계기를 통해 한층 강한 결속의 정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은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 모교의 교가를 복창 높여 부를 때, 응원가를 손짓하면서 부를 때 코끝이 찡해짐을 느낀다면 이는 모두 한마음이 된 것이다. 그런 계기가 자주 마련될수록 그 유대는 더욱 강해진다.

개인 動靜 전달 관리 철저히 잘난 몇 사람 들러리 경계해야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자라오면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왔다고 삶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대상을 목표로 하여 경쟁적 상대나 적대적 감정을 갖고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성장을 위한 성취욕구 발굴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학교 생활을 같이 한 동창생일 경우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학교의 선택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절과 다

할을 위해 동원된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된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게 된다.

변잡한 거리에서도 복새통 같은 생활 속에서도 매 장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깨닫고 싶다는 말할 수 없는 욕구와 부담없이 그저 좋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에 취하려는 생각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일정한 기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공유하

'나, 너' 아닌 '우리' 중요성 더욱 다지고 소외된 친구 보듬어 안는 우정 키워야 갈등·정치적 이용 없을 때 생명력 유지

는 무엇'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부각시켜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우애가 솟아나게 해야 한다. 경교의 자랑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긍지를 갖게 하는

△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어 정리하고 서로에게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그리하여 비교적 소외감을 갖고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동문에게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부담없이 할 수 있는 행사로서 가장 무난한 것이 등반대회일 것이다. 기별이나 서클별로 하는 끼리끼리의 등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역동창회와 본부동창회가 공동주최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문들 만남은 정서적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동창회 회보는 단일화(본부회보, 재경회보로 나누지 말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코너를 설치, 특별한 것은 그곳에 게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로 가깝게 느끼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잘 알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에서이다. 그렇게 되면 중요 정서적 공감이자 지지가 되게 한다.

△ 동문관계는 가장 순수한 인간 지향적인 관계이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내고 그 속에 동창회를 끼어 넣지 말아야 한다. 개인관계라 함은

자신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동창회 관계가 자신이 선택한 학교가 같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것은 일반적인 친구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별다른 구속력이 없이 임회가 자유롭다. 외부의 강제요인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적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외될 경우 가까운 친

편안한 만남·즐거움 분위기 애살 솟는 계기 되도록

구 만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와 만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안정된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급기야는 자신의 준거집단으로 삼게 된다.

△ 비교적 여유가 있는 동문들로부터 나눔의 기쁨을 갖고 물심양면을 드러내지 않게 출연케 하여 후견인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항상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 동창회의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말 것이며 그 조직 자체를 정치인을 우위(높은 자리)에 앉히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조직의 힘이 필요하면 별도 조직을 통하여 동창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동창회의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빚어지고 심한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동창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또 다른 경험의 하나로 여겨 넘겨야 한다.

동창회에서 선후배나 동기가 서로 만나면 즐거워야 한다. 여기 취미활동 식사 음주를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 동문을 만나면 편안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없이 노래를 잘 불러야 하고 노래를 못 부르면 춤이라도 잘 추어야 한다. 나름대로 모임에 기여하려는 애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용마대동제에 참석한 동문·가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속에 즐거운 한마음을 펼치고 있다.

른 조건들(주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래서 학교 생활 속에서 동창끼리 느끼는 유대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이것은 생각 나름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인들을 극복하고 끈끈한 동창의식으로써 서로의 애환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광풍처럼 몰아치는 일상의 의무에서 탈출해 나 자신과 나의 행동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때를 가지면서 마음 편안히 부담없이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 그때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 학교 동창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나 술잔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그시절로 되돌아가 변잡한 오늘의 시름을 잊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동창회는 무엇보다 빈부 지위고하 등 현재적 특성을 초월하여 '그때 그시절'의 상태에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잘난 몇 사람을 위한 잔치에 들러리 역

본부·재경 회보 단일화 바람직 본부·지역 공동주최 행사 추진을

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 이것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빛나고 단단하고 지혜롭고 날쌔면 개인의 영광이고 개인의 이상 실현으로만 여길 것이면 이는 동창회와 무관하다. 이것을 동창회와 어떻게 연결하여 동창회와 동문 모두의 광영으로 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사람을 위하여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 기뻐했다. 새싹이 돋아 자라면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법, 그러다가 시들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냇이 있어 다음 해에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우리 가슴마다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어 계속하여 새싹이 돋아나듯 계속 되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발 축 전

새 천년의 주인공으로서 慶高人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日本地域慶南中高校同窓會名簿

東京	權高卓(13회) 株式會社 東洋理研所 代表取締役	朴永宇(29회) 株式会社 アイシッピング 代表取締役	丁親根(8회)
安田(3회)	安田正(13회) 又野(昌) (株) 社長	韓承東(29회) ハンキョレ新聞 東京事務所 特選員	張龍浩(26회) 東京國際大學 商學部 教授
福岡(4회) 宮入・ソレバ製作所 社長	金光浩(16회) (株)サンバック 代表取締役 専務	申九東(30회) 韓龍重工業(株) 東京支店 次長	李漢英(38회) (財)高品留産物研究所
井春貴(4회)	李在隆(16회) 在日大韓總領事館 東京ベテクス支部 代表理事	鄭圭弘(30회) 三星火災海上保險(株) 東京事務所 所長/部長	
徐維泰(5회)	金大郁(18회) (株)雙龍ジャン 代表取締役		
金榮進(5회) 多摩製鋼所 材料部長	李智明(19회) 社團法人 韓龍報 東京事務所 所長	大阪	東京地域會長團
李東燮(6회) (有)海商社 代表取締役	金址昌(23회) 雙龍建設(株) 東京支社 支社長	姜錫興(7회) (株)神農工研 代表取締役 會長	會長 金光浩(16회)
金樹根(8회) (有)同代表取締役 會長	朴智敏(27회) YTN 東京支局		副會長 金大郁(18회)
金榮末(8회) 株式會社 新成ジャン 代表取締役	具滋源(28회) 國農銀行 東京支店 次長	其他	李智明(19회)
郭智浩(9회) 株式會社 サンサス 代表取締役 社長	姜智賢(29회) Greenwich NatWest, Director	朴永敏(38회)	總務 朴永宇(29회)



제15회 일오산우회 주최로 열린 경부합동산행에서 산우회원들이 신불산 정상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룡능선도 발 아래에”

제15회 서울·부산 79명 신불산에서 합동산행

제15회동기회 재경 보름산우회 초청 경부합동등산대회가 부산 일오산우회 주최로 지난해 11월20~21일 이틀간 경남 양산 근교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열렸다.

행사 첫날인 20일 일오산우회(회장 강무상) 회원 41명은 재경 보름산우회(회장 이수신)회원 38명을 환영하는 전야제를 온천장 ‘장보고깃집’에서 개최했다. 부산·서울 동문 79명은 늦가을의 싱싱한 전야회 맛에 흠뻑 빠졌다.

뒤편 21일 오전 8시 부산·서울의 79명은 온천장을 출발, 오전 9시 산행 기점인 경남 언양 작전정 간월산장에 도착해 산행에 돌입했다. 서너 번 어려운 바위 띠지 등반도 하고 절벽인 공룡능선도 무사히 통과, 신불산 정상(해발 1202m)을 정복했다. 일행은 하산지점인 대가천 옛터산장

에 오후 2시20분 도착(소요시간 5시간 20분)했고, 승합차로 부산에 돌아와 호프집에서 아쉬운 작별의 환송식을 가졌다.

제12회 직능회 활동 왕성

제12회동기회(회장 이용언) 기우회와 낚시회는 각각 99추계대회를 열어 동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동창애가 더욱 진하게 굳게 했다.

낚시대회 대어상 오세정

낚시회 99가을낚시대회가 지난해 11월6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서 이용언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대어상 오세정, 우수상 김석주, 감투상 김종수·반창진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대회 후 일행은 ‘천하일품’의 회솜씨를 발휘한 김종수 고문 덕택으로 푸짐한 생선회 맛을 즐겼다.

바둑 우승 정진태·문영철

제12회동기회 기우회는 지난해 11월20일 부산 중구 부평동 ‘구덕기원’(정진태 동문 운영)에서 99추계바둑

대회를 열었다.

김철기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A조는 우승 정진태·준우승 김상희·감투상 이수영, B조는 우승 문영철·준우승 정장길·감투상 박문기·예석상 장상근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도 패자부활전이 격전을



제12회 동기회 99가을 낚시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종호 신임회장 선임

일오산우회 정기총회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는 구립 19일 밤어사~금정산 남문 코스에서 제168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기준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산행에는 동문 22명과 부인 8명 등 모두 30명이 참석했다. 일오회는 산행 후 온천장의 대도초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장종호 동문(사진)을 회장에, 황춘식 동문을 총무에 선임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한편 2년간 수고한 강무상 직전회장과 박찬호 직전총무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의 뒤풀이를 했다.

제27회 대운산 등정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 제110차 산행대회가 구립 12일 경남 서창 근교 대운산 정상(해발 742m)~남창코스에서 장기남 산행대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산행은 강봉호 황호경 두 동문이 인솔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노포동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편으로 이동한 일행은 서창의 들머리를 따라 산행에 들어갔다. 이날 일행은 남창계곡으로 내려와 점심식사를 했고 이곳에서 강 동문 회사 동료 일행과 만나 부산으로 돌아왔다.

첫 경부바둑대회 경주시

제23회, 우승 단체 서울팀·개인 김덕규 차지

제23회동기회 이삼기우회는 지난해 11월27일~28일 이틀간 경주 한화프라자콘도에서 제1회 경부합동 천선바둑대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제23회동기회 동문들이 제1회 경부 바둑대회를 지난해 11월27일 경주시 개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의 이삼기우회(회장 정상진)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서울에서 김덕규 회장 등 5명, 부산에서 12명 등 모두 17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27일 오후 6시 대회장에 도착한

서울·부산 동문들은 맷돌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하고 8시 단체대항전에 돌입, 재경팀이 3-2로 우승했다.

다음날 28일은 오전 6시 전원이 기상, 토합산 일출등경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개인전을 벌여 우승 김덕규, 준우승 정상진, 3위 박영창, 4위 이종무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대국을 마친 동문들은 정 회장의 스폰서로 점심식사를 나누며 합동회의를 개최, 이 행사를 매년(11월 셋째 또는 넷째 주말) 열기로 하고 타지역 동문들도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종규 전동기회장이 3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동기회에서 정규 예산에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제20회 ‘삼륙학당’ 7차 모임

제20회동기회 삼륙학당(3-6 반창회) 7차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회관 ‘크리스탈비페’(국제신문사 24층)에서 김태선 회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반창회는 스매년 가을 서울·부산에서 반값아 가며 모임을 갖고 스매해에는 서울·부산에서 각기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매월 둘째 일요일에 산행대회를 열고 있다.

서예가 裴吉基 은사님 별세 제1~6회 국어담당



모교 경남중에서 1945년 10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봉직(1~6회 국어담당)했던 예술원 회원

인 서예가 裴吉基(사진) 은사님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9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은사님은 일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대와 동국대 교수를 지냈고 64년 한국서예가협회를 결성해 초대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예술원상, 국민훈장 석류장,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고 ‘서예의 예술성’ ‘한국서예사’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현행 ‘慶南中高同窓會報’ 제호는 은사님의 작품이다. 장례는 한국서예가협회장으로 치러졌고 장지는 충북 괴산이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박희석여사와 3남3녀.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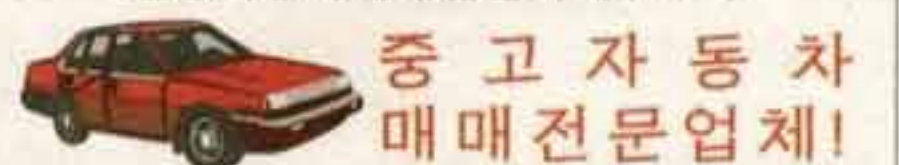
대경명란(주)

강창수(21회)

본사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 70-2
TEL : (051)255-7211~3
FAX : (051)255-7214
서울영업소 TEL : (02)593-6163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형자동차매매단지내(14호)



중고자동차
매매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각 동기회·지역회 99송년잔치 지상증거

각 동기회와 국내외 지역회들도 가족 동반으로 20세기 마지막 송년잔치인 '99송년의 밤'을 열어 우정을 나누며 새 천년 새 세기맞이 결의를 다졌다.

신년회 1월26일 예정

재경10회 새 회장 차동렬



제10회재경동기회는 구랍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양재동 '스포타입'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신입회장에 차동렬 동문(한석엔지니어링 고문·사진)을 선출했다.

김상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고 추월무 동문의 두 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2부 송년의 밤 행사에서 김종해 동문이 행운상 대상으로 갈라 TV를 수상했다. 이밖에 김해룡 동문 부인이 고압라디오를, 이만섭 동문과 박칠민·양현두 동문의 부인이 각각 토스트기를, 최윤해 동문과 안우만·황정조·서창석 동문의 부인이 각각 전화기를 차지했다. 또 참가상으로 전원에게 보은병이 주어졌다. 이윤수 동문이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대신 협찬금을 회사했다. 한편 동기회는 오는 1월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5회 국악한미당

제15회동기회는 구랍 23일 오후 6시 부산 아리랑관광호텔 봉황실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정기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동문 67명과 부인 29명이 참석했다(사회 김만열 총무). 정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특별초청공연에서는 국악인 김준호·손심심 부부가 '낙향성 심리화에...' 등 걸쭉한 입담의 창 한마당을 펼쳤다. 3부 여흥에서는 연극인 김승일 동문 부부의 사회로 노래자랑 및 행운상을 추첨, 박옥선씨(강재모 동문 부인)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세청 전현직 동문 재회

부산지방국세청 전현직 동문 '99 송년회가 구랍 9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해림갈비집'에서 열렸다(사회 이성호 동문·36회). 박명문 회장(21회·부산청 조사국)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선후배 30여명이 참석, 행운을 기원하며 축하를 들었다.

제15회 삼팔회·사하회

제15회동기회 삼팔회(3-8반창회)는 구랍 8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뷔페'에서 동문·가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사하회는 구랍 12일 부산 서구 압남공원에서 짝수달 둘째 일요일에 열리는 산책모임을 열었다. 장중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10명의 동문·가족이 참석, 건강증진 산행을 했고 '서울힐집'에서 손부홍 권승부 동문 스폰서로 송년회를 가졌다.

재경 동문들도 대거 참석 인천 최재용 회장(11회) 유임



인천지역동창회 99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가 구랍 9일 오후 6시30분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용마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재용 회장(11회·대용유화공업 사장·사진)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최 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 1부 총회는 최 회장 인사, 이현진 동문(10회) 격려사, 주범국(5회)·임성부(6회)·옥영석(20회) 동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 10년 동안 총무로 봉사한 서덕용(20회) 동문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경 11회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자리가 한결 뜨거웠다. 박상용동문(26회)의 "세우자, 세우라!"라는 아리송한 건배 제의로 시작된 2부 '용마의 밤'은 노래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엮여졌다.

제12회 지역·직능회

제12회동기회 지역 및 직능회별 송년잔치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우정을 쌓았다. △중·서·영도회(회장 김준철)는 구랍 23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화촌'에서 20세기 마지막 송년회 개최. △강서·사상·사하회(회장 엄태섭)는 구랍 12일 구덕산에서 송년동반. 꿀맛 같은 막걸리로 건배하며 새해 약진을 다짐. △경문회(회장 김용호)는 구랍 14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화촌'에서 송년회. 특히 경문회는 올해 교장 승진·영진 4명, 교감 승진 2명의 경사를 맞았다. △테니스회(회장 박삼덕)는 구랍 4일 경북 경주시 근교 보문단지 한화콘도에서 1박 2일 코스 부부동반 송년회.

제14회 부부동반 120명

제14회동기회는 구랍 15일 부산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룸에서 '99용마의 밤'을 개최했다. 노수덕 회장이 주재한 이날 송년회는 120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을 나눴고 새 천년을 맞아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게 생활하며 번함없는 우정을 나눌 것을 다짐했다. △테니스회(회장 박삼덕)는 구랍 4일 경북 경주시 근교 보문단지 한화콘도에서 1박 2일 코스 부부동반 송년회.

제27회 부인들 열창 인기

제27회동기회 '99송년회가 구랍 1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열렸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창원의 이천식 김성주 동문 등 80여명 참석. 장기남 동문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1부 행사는 교가제창, 회장 인사, 축배 등으로 이어졌고 김경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여흥은 초대 여가수의 흥겨운 노래, 동문부부 소개, 부부노래자랑, 장기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펼쳐졌다. 특히 김달호 김주호 옥명훈 조영일 동문 부인의 4중창과 음치(?)로 소문난 김현수 동문 부인의 자청곡 등이 앵콜을 받았다.

제28회 신입회장 우견식

제28회 동기회는 구랍 9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 99정기총회 겸 송년회 열고 우견식 수석 부회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영대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졸업 후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동문 등 많은 인원이 참석, 임원진들이 서서 식사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50여명 '덩더쿵'신바람 울산 신입회장 조준탁(13회)



울산지역동창회는 구랍 10일 오후 6시 30분 울산 코리아호텔 연회장에서 동문·가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개최. 축배를 나누는 용마가족들은 노래와 장기자랑을 벌인 끝에 유영숙씨(박흥조 사무국장 부인)가 대상(TV)을, 민훈기 동문(22회)이 금상(본부회장 기증 TV)을, 허종균 동문(36회)이 뉴밀레니엄상(냉장고)을 수상했다. 한편 앞서 열린 1부 정기총회는 박흥조 사무국장(22회)의 사회로 진행돼 조준탁 수석부회장(13회)을 신입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행사는 차수명 직전회장(12회)의 인사말, 정원준 고문(3회) 격려사, 조대제 본부회장(7회) 축사, 김성규 감사(10회) 감사보고, 김기홍 고문(4회) 주재의 임원개선 등으로 진행됐다. 조 신입회장은 김익도 직전 회장(12회)에게 공로패를 전달. 이날 내빈으로 본부에서는 조대제 부회장과 최득호 사무국장(11회) 김병수 총무(22회) 등이, 부산여고에서는 울산동창회 회장단이 참석.

일본 東慶會 노래자랑

일본도쿄지역동창회(東慶會)는 구랍 21일 오후 7시 도쿄의 Q'on(Ocean Dish Restaurant)에서 '99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광신(16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축제는 부부동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부부노래자랑 등으로 우정 만끽. 일본도쿄지역동창회(東慶會)는 구랍 21일 오후 7시 도쿄의 Q'on(Ocean Dish Restaurant)에서 '99 송년회를 개최했다.

제18회 장기자랑 등 다채

제18회동기회 송년회가 구랍 1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22층 크리스탈뷔페에서 부부동반 150여명(부인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회장단 케이크 자르기 ▷박귀환 총무 경과보고 ▷역대회장 과 총무 꽃다발 및 선물증정 ▷행운상 추첨 ▷장기자랑 ▷동기회사무실 운영자금 증식모금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칼라TV와 화장품세트 등은 김길제 김길출 김만근 동문이 기증했고 참석자들은 2000년 달력을 한부씩 선물받았다. 한편 허태열 동문(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더 뜨겁게 했다.

초만원에 임원진 입석식사

제28회 동기회는 구랍 9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 99정기총회 겸 송년회 열고 우견식 수석 부회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영대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졸업 후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동문 등 많은 인원이 참석, 임원진들이 서서 식사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희망의 새 천년이 열리고 21세기 첫 해가 스타트했다. 모두들 '새로운 지평의 전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부동창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고 '정보·문화·인간'을 키워드로 하는 21세기에 유연히 도전하기 위해 용마가족의 역량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영광을 위해 용마 21인으로부터 소망을 들어보고 이를 화합·결속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다시 '동문대통령' 배출을 신 현 익

제3회·동기회 총무

여러 동문들에게 간절히 소망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적인 희망) 21세기에 는 노벨상을 받는 동문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적인 희망) 21세기에 도 새 '동문대통령'을 배출하는 영광을 누리자. 셋째, (보편적인 희망) 20세기에 태어난 모든 동문들이 21세기에는 소원 성취하고 21세기에 동문이 될 여러분은 선배 이상으로 모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즐겁고 반가운 동창회로 최 재 용

제11회·인천지역회장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뚝뚝 뚫쳐 용마의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

는 시대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터전을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출발 하여야 한다. 새 천년에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우리 용마의 힘으로 꼭 구현하자.

썩은 나무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투철한 용마인 각자의 각성 없이 새 역사는 동트지 않는다. 자각 높은 용마인이 모인 사회가 곧 내 땅, 내 나라이기를 회구하면서 우리 용마인 스스로 영광스러운 역군임을 자랑 삼아야 할 것이다.

힘있는 '경고인'으로 정 기 문

제15회 회장·코스콤 대표이사

우리 경고인은 지난 50여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왔듯이, 새로운 천년을 역량과 지혜로 이끌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년 사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꺾어내려왔던 일부 세력들의 패배주의적 질서와 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2000년 새해 우리 경고인의 모습은 이론으로 재무장하여 새 천년을



지난해 5월17일 열린 제2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시상식 장면.

진다. 새 천년을 맞은 우리는 지역 동창회로서의 특성을 살려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서로 돕자. '이웃사촌'으로서의 만남으로 용마의 긍지를 살려나가자. 가족과 함께 하는 동창회, 즐겁고 반가운 동창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다려지는 동창회 모임으로 만듭시다.

열어가는 그야말로 힘있고 지혜로운 자유인이어야 한다. 힘있고 지혜로운 2000년대의 경고인이 되려면 50여년을 이어온 전통과 신념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더 자랑스럽게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용마가족의 응지를 보여주자.

후배 양성에 성원을 김 성 찬

제12회·경남교 교장

새 천년에는 그 무엇보다 우리 용마인들이 화합, 단결하는 미덕을 발휘했으면 한다.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깨우쳐 주고, 잘 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많은 동문들은 모교 방문을 자주 했으면 한다. 모교에 되도록 자주 와서 후배들에게 꿈도 키워주고 격려도 해주었으면 한다.

'용마문화'로 국제사회 선도 주 윤 탁

제15회·경상대 예술대 교수

20세기의 마지막 시간들은 우리 용마가족들에게 한 축독한 기독교적 '시련'의 시절이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영광과 축하의 잔치를 위해 국가적 민족적 역량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부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세기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문화나 사이버의 세계, 그리고 지식경제를 포함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성은 나태한 모습으로 지나간 시대를 붙들고 있다. 새로운 세기엔 갈등과 시련을 극복하고 찬란한 '용마문화'가 지역 사회와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집결되어지기를 소망해본다.

복지사회 위해 역량발휘를 신 현 호

제14회·세무사·한국조세전략연구소 대표

새 천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

희망의 21C 용마 21명의 소망

본부-지역 활발한 교류를

김 광 신

제16회·일본도쿄지역 회장

21세기는 많은 변화를 예측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굴의 정신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도록 온갖 시련을 극복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이 도전정신이 우리 국민의 무기이자 잠재력이 아닌가 한다.

60년 가까운 경남중고교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 발전사의 흐름에 일조를 하고, 때로는 중추적 역할도 했다고 자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마정신'을 발휘하여 새 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동문 각자가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동창회 본부를 비롯, 각 지역동창회 간의 활발한 교류와 무궁한 발전을 본다.

상호 협력 보완을 통해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무산됨을 보아오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따라서 새 천년에는 동창회 내에 '해외사무국'을 발족 운영하여 국내외 동문들을 상호 연결하고, 국가별로 장기적인 소식과 동정 등을 알리며, 직종별로 국내외 연결활동을 한다면 동창회차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모교 방문 잦았으면

백 창 영

제23회 회장·합성애운 이사

나는 모교를 졸업한 지 20~30년 사이 두번 잦아왔다. 너무 인색했다고 생각한다.

본부동창회는 동문들이 수시로 모

회시켜야만 할까.

하나된 마음으로 인생의 간여역마다 조금은 쉬어 가면서 주변을 둘러 보고 낮은 데로 임하기도 하는 성숙된 동문사회를 기대해 본다.

조직 활성화 마인드를

배 병 호

제27회·방사선과 전문의

모방중국에서 실시한 '새 천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도 일치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어쨌든 지난 한해 동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더 많이 접해야 했던 우리들은 새 천년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것이라 여겨진다.

운이 넘치는 용마가족이 되기를 기원한다.

2000년부터는 용마가족의 한마당 가을잔치인 기별야구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할 각오이다.

우리 경야회는 모교 역사의 한 축으로 기별야구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모교야구의 중흥운동에 앞장서겠다.

500여 경야회 동문들이 단합, 결속하는 한 세기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젊은 집행부·순수성 지향을

최 거 훈

제30회 회장·변호사

새 천년에는 본부동창회도 변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진들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동문들로 교체되어야 하고, 이들이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창회가 변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생명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새 천년에는 본부동창회가 더욱 순수해져야 할 것이다. 동창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본능적, 자생적 집단이다.

그렇다면 동창회를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출세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미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새 천년에 우리 동문들은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절제하면서 전체 동문과 본부동창회를 위하여 한 번 힘껏 뛰어보자.

사회의 동량 되게 지도를

정 의 윤

정철수 동문(제31회·동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아들·경남고 1학년 8반.

'경남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원형교사(덕형관)와 용마상일 것이다.

원형교사는 지금도 경고인의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을 주며 용마상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상을 나타낸다.

대선배님인 김영삼 전대통령의 모교 방문과 계속 이어지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볼 때마다 형제에보다 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경남고'라는 것을 자신 있게 외친다.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이 여기에 정신적 발자취를 남겨 놓으셨기에 저희들 또한 이 경남고 교정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키우며 이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끌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한다.

경쟁력강화 새 패러다임을

김 법 영

제33회·동의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우리 동창회도 새 천년의 장엄한 태양처럼 새로운 도약을 하자. 동문과 가족들의 결집력이 강화되어 역량을 발휘하도록 본부동창회가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발하자.

작은 소망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한 교문을 나왔다는 하나만으로 끈끈한 형제애를 지속시키자. 유대감 촉진에 동문 스스로 앞장서자.

그리고 동문과 가족 모두가 하나

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 때 전통과 명예가 더욱 빛날 것이다.

'2건학'각으로 비전 재정립을

박 영 철

제36회·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적용된 이후 우리 모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모교 출신 중 명문대 합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입시성적만 보면 경남고가 명문이 아닌 평범한 학교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동기회 중에서 평준화 동기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가까이 커졌다. 그러나 아직도 동창회는 비평준화 동기회 위주로 운영되고 이른바 '뺑뺑이' 동기회들은 겉돌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남고가 21세기에 도 명문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교의 비전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립하고, 동창회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용마가족들이 '제2의 건학'이라는 비장한 심정으로 21세기 벽두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세상서 만나는 동문

최 성 우

제40회·동덕대 학보사 기사

'고교 동문'이라는 건 참으로 기분 좋은 인연이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깝고 푸근하고 정답게 느껴진다.

다름다나 늘 컴퓨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는 아주 가끔이지만 넓디넓은 인터넷에서 경남고 동문과 관련된 사람이나 홈페이지를 대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끈끈한 핫라인이 사이버공간 속에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쉽게도 우리 동창회에는 홈페이지가 아직 없다. 제경동창회 홈페이지에서 아쉬움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어디 본부동창회만 하겠는가.

새 천년에 인터넷에서 '날고 뛰며 굽어치는 용마'들을 만나고 싶다.

본부 이사회 기능 재편을

김 천

제45회·동기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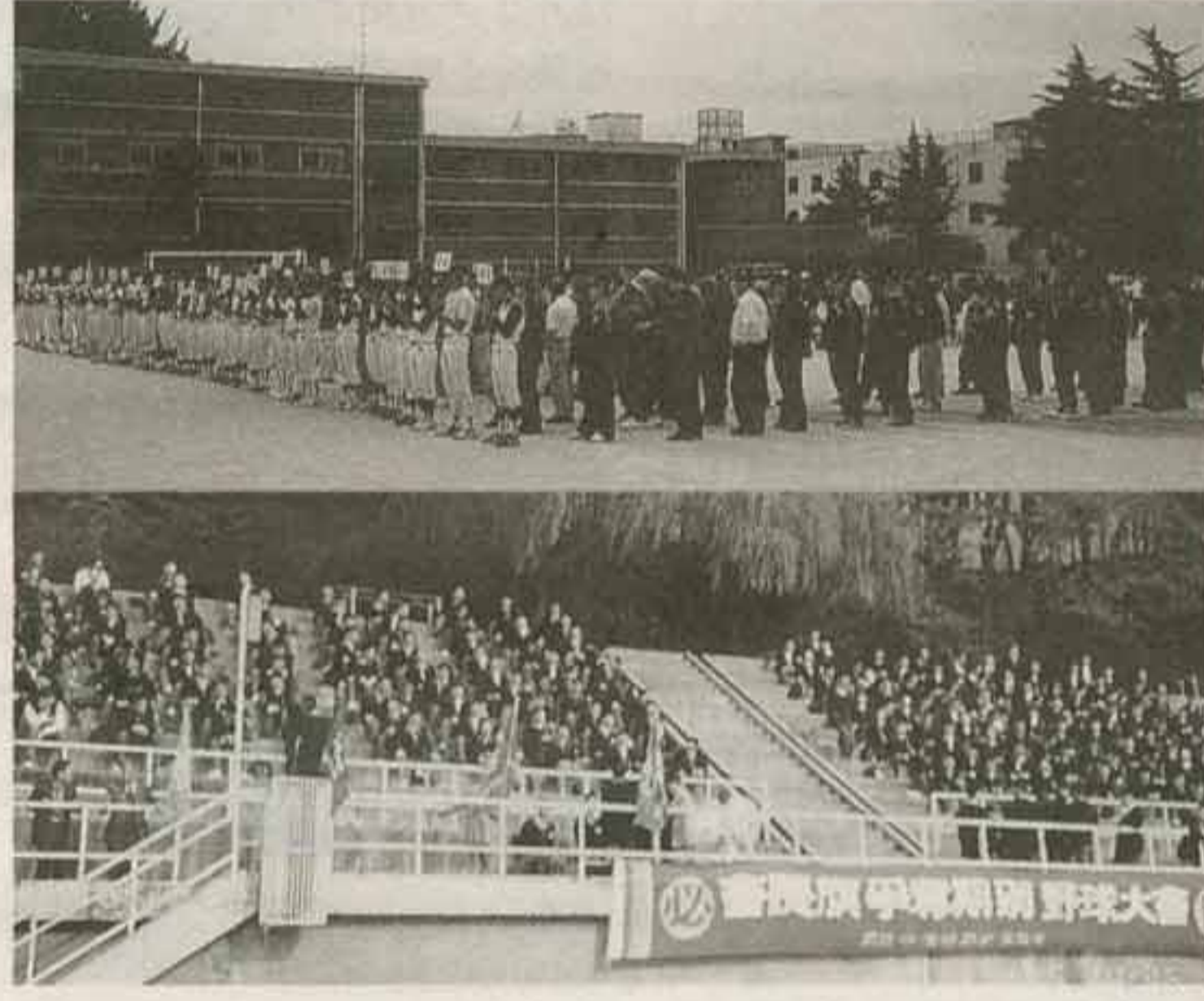
본부동창회 이사회의 경직성과 수직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사회는 몇몇 이사를 제외하고는 동문 선배배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같은 동문'이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한 인간적인 유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기수가 한참 아래인 후배들로서는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발언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소위원회는 동창회의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준비 등을 위해 이사들을 안배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각종 행사를 사전 심의하며, 이를 토대로 전체 회의에 상정하여 협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위원회를 통한 각종 행사의 사전준비는 경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전문성 배양으로 인한 내실 있는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10일 경남고 구장에서 열린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위)과 11월6일 결승전에 참가한 재학생 응원 장면.

교를 찾는 캠페인을 펼쳤으면 좋겠다. 아들 딸 데리고 뒷산에 소풍와도 좋다. 운동장에서 축구 야구 농구를 해도 좋다. 동문 여러분, 덕행관이 울고 있다. 예수 얼굴들이 보고 싶어서.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 세가지는 절대로 지울 수 없다.

동문 여러분, 모교에 한번 놀러가 보라. 한 시간 정도만 산책해도 그곳은 고향과 어머니 같은 포근함이 있을 것이다.

새 천년 첫 해에 동기회 회장을 맡았다.

'더욱 친해질 수 있는 동기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모교를 찾아가는 대소 행사에는 마음이 곧 미래의 표상이라는 것을 깊이 간직해주시기 바란다.

변화의 시대를 恒心으로

강 석 철

제25회 회장·동서대 재단 사무국장

문득 뒤돌아보는 순간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틀이 변하던 모습에 놀라 뿐인 것이다.

지금 우리보다 젊은 이들은 변화라는 소리에 걸림하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양이지만,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변

우리 동창회도 조직활성화의 새로운 마인드를 구축하고 동문과 가족 상호 간에 더욱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용마가족' 자긍심 고취를

정 지 혜

정인식 동문(제28회·정인밸리리 대표) 딸·서울대 약학과 입학

개인적으로는 '고3'이라는 각별한 시기를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는 2000년은 내게 색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 게다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경남중고 동문 중의 한 사람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과거와 설레임이 앞서는 새로운 미래는 늘 즐거웠고 또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가족도 경남중고 동문일가로서 역할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새 천년에도 용마가족은 우리나라 주체로서의 마음가짐을 꼭 지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별야구대회 활성화 앞장

이 중 원

제29회·경야회 회장

명예를 더 빛내는 모교, 옹비하는 동창회, 저력을 과시하는 경야회, 행

서로 사랑하며 전진을

강 성 속

제22회·외환은행 사직동지점장

산에서, 숲에서, 야구장에서 우리는 그 고뇌와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그것은 골렐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남은 틀을 부서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남을 속에서 더 남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이고 고뇌 속에서 더 큰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이다.

얼굴을 들고 당당히 걸자!

다시 팔뚝 문쳐 자신 있는 목소리로 '후라 경고!'를 외치자.

우리를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자.

동문 교량역할의 동창회

박 흥 조

제22회·울산지역 사무국장

우리 동창회도 뉴밀레니움을 맞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변화를 바라는 동문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영광을 되찾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좌절감으로 혹시 가슴에 빈 곳이 있다면 그 빈 곳을 채워 감동을 이끌어 내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화합과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동창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동문들이 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동문들에게 애정어린 관심과 섬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부 '해외사무국' 운영을

조 광 호

제23회·뉴욕지역 거주

미국 뉴욕지역에 거주한 지도 16년이 넘었다.

새 천년을 맞아 동창회에 바라는 것은 그동안 국내지향적이었던 많은 행사와 노력을 이제는 국외로도 돌려보았으면 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거주 동문들이 학계 경제계 관계 종교계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왔다. 단지 국내와 국외의 동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 눈앞의 '금강산!'을 부르며 ...

19차 산행(98년 10월)

이번 산행은 97년 3월에 시작한 구덕산우회의 통일염원 백두대간 종주가 대미를 장식하는 구간.

1일째 전날 밤 늦게 도착한 오색의 민박집을 떠나 한계령에서 새벽 6시30분경 출발, 산사람들의 영원한 산행터인 설악에 들어서다. 두시간여의 급경사 길을 올라 서북능선상의 삼거리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고 끝청과 증청을 지나 대청봉(1708m)에 오르니 바람이 세차 기념촬영도 하기 힘들 정도다. 지리산 천왕봉을 출발하여 1년8개월만에 설악산 대청봉에 도착하니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운각에서 (늦은 점심) 설악의

지리산 출발 1년8개월만에

감격 속 대청봉 밟아

부산·서울서 격려팀 집결

휴전선 너머로 고가 올려보내

등뼈 공룡능선으로 향한다. 신선봉을 지나 공룡 제일의 조망터인 안부에 도착하니 동쪽으로는 외설악의 천화대암릉, 칠형계봉능선, 화채능, 저멀리 울산바위가 천불동계곡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다. 서쪽으로는 내설악의 용야장성, 백운동의 암릉, 서북릉, 귀대기청봉, 저 멀리 안산까지 설악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1275봉을 지나 가야동 갈림길인 아영터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린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이범철(17회) 유근준(20회) 박준식 동문(23회)이



6·끝 <

한계령~설악산

오기현

제20회·구덕산우회 산행대장

힘이 드나보다. 아영터 옆의 바위 밑이 우리에게 아늑한 식당을 제공해준다.

2일째 아영터를 출발~나한봉~마등령 도착. 이명규 동문(24회)이 우리와 함께 산행하기 위해 오세암쪽으로 올라와 기다린다. 암릉지대~너들지대~저항령 도착. 먼저 내려온 오기목(23회) 이명규 남기태 동문(31회)이 라면을 끓이고 있다. 중식 후 악명 높은 너들이 펼쳐지는 황철봉(1391m)을 올라 다시 제일 긴 너들을 통과하여 미시령에 도착하니 저녁 8시30분경.

3일째 부산서 장병호(20회) 유홍석 안형수 박홍규(이상 24회) 부부 최우정(24회) 배재홍(27회) 부부와 서울서 이성원(22회) 이현국(24회) 신용도 김중철(이상 27회) 최입수 동문(30회)이 합류, 30명이 모이다.

신선봉~대간령(중식)~병풍바위~마산(1051m)~알프스 스키장 진부령 도착. 부슬비가 내린다.

민박집에 들어서니 서울서 서기식(23회) 부부와 이영재(23회) 석용환 서명수 노현상(이상 28회), 부산서

하대용(28회) 김보상 동문(28회)이 우리를 맞이한다.

저녁식사 시간, 서기식 동문 부인의 인사말이 우리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다. 서 동문은 지병인 폐암에도 불구하고 천왕봉 출정식에 참가, 우



통일염원 백두대간 종주를 마친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대간 마지막 지점인 진부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고 산악반이 부산서는 고교 산악부의 효시였다. 출발은 1960년 김한무 문수신 서수홍(이상 16회) 김대성 윤기태 임남택(이상 17회)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 부산 산악운동의 여명기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필자가 경남중 시절 경남고 산악반의 장비 및 사진전시회를 미화당에서 보게 된 것이 등산 입문의 큰 계기였다. 현재 이창흠 구덕산우회 회장을 비롯해 연두현 이용만 김봉호 임우근(이상 19회)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고교 졸업 후 OB산악

종주를 마치면서

대간길 연인원 400명 참가 산행예산 약 7천만원 소요 안형수·이종태·남기태에 감사

회를 창립했고, 구덕산의 정기를 이어받자는 뜻으로 산악회 명칭을 '구덕산우회'라고 했다. 이번 통일염원 백두대간길에도 용마인의 기상과 함께 그 이름이 대간길에 남았으리라.

그동안 대간길에 연인원 4백명이 참가했고 예산은 약 7천만원 정

도 소요. 우리를 후원해준 동문들과 특히 제20회 동기에 감사 드린다. 그리고 백두대간 전 구간을 필자와 함께 완주한 이창흠 회장(19회)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후배로서 제일 고생한 안형수(24회) 이종태(28회) 남기태(31회) 동문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우리의 '백두대간 화가' 차일두 화백이 그림의 완성을 거의 마치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슬픔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통일염원 백두대간 완주기념 구덕산우회

■ 부산

- 고 문 김대성(17회) 경상대 총장
- 이 범 철(17회) 산행 대표
- 장 이 창 흠(19회) 가나상사 대표
- 부 회 장 김대원(20회) 한도실업 대표
- 총 무 안형수(24회) 늘에코리
- 산행대장 오기현(20회)
- 회 원 김성수(18회)
- 하 자 호(18회)
- 김 봉 호(19회) 동화북애 대표
- 이 범 호(19회) (주)리호 대표이사
- 이 용 민(19회) (주)삼명 이사
- 김 명 균(20회)
- 이 상 현(20회)

- 회 원 이 실 근(20회) 대한항공 이사
- 장 병 호(20회) 국제신문 국장
- 김 승 일(22회) 삼상여고 행정실장
- 박 재 구(22회)
- 변 종 호(22회) 유신코퍼레이션 상무
- 오 기 목(23회) 자영업
- 권 수 찬(24회) 서면중정보부장
- 류 홍 석(24회) 동원석공(주) 대표이사
- 박 홍 규(24회) 박스이파 원장
- 윤 두 일(24회) 전하동공정개발 대표
- 장 민 재(24회) 남상배운 부장
- 최 우 정(24회) 금산배운 대표
- 하 용 봉(24회)

- 회 원 김 태 권(26회)
- 김 지 원(27회) 창신(주) 대표
- 배 재 홍(27회) 고려검정 소장
- 황 영 규(27회)
- 김 준 연(28회) 구서외과 원장
- 문 일 호(28회) 태양건설 대표
- 서 영 대(28회) 한나통신경영성과부원장
- 이 종 태(28회) 경성대 교수
- 정 근 재(28회) 코오롱벤처 대표
- 하 대 용(28회)
- 남 기 태(31회) 보암건설 대표
- 이 종 학(33회) 자영업

■ 서울·해외

- 회 원 이 성 원(22회) 국토교통(주) 이사
- 이 총 덕(23회) (주)금강DKA 대표이사
- 서 기 식(23회) 대한정보(주) 선임위원
- 이 영 재(23회) 해안보세창치장 대표
- 김 영 조(23회) (株)서문문화대표이사
- 이 명 규(24회) 강원 동해경찰서 서장
- 이 현 국(24회) 경희대 수원캠퍼스 예술대학장
- 변 종 석(24회) (주)A.H.K 대표이사
- 이 승 원(25회)
- 강 운 중(25회) 유림상상 대표이사
- 남 순 일(25회) Factory Mutual Research S·R·S
- 신 용 도(27회) 원진교역(주) 상무
- 김 중 철(27회) JACY(재)인도네시아 대표
- 곽 태 홍(27회) 제주 한국병원 과장
- 김 하 원(28회)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 노 현 상(28회) 한대건설(주) 차장

- 회 원 서 명 수(28회) 산경건설(주) 부장
- 최 석 근(28회) 광익정보 대표
- 김 보 상(28회) N.C TRADING CO. 대표
- 최 임 수(30회) 한컴리복(주) 차장
- 한 호 용(30회) (주)트라이텍스 대표이사
- 준회원 박 준 식(23회) 한국 뉴욕주 경제협의회 고문
- 준회원 박 종 호(32회) 세동산업(주) 부장
- 준회원 윤 대 수(27회) 경인상세(주) 대표이사

구덕산우회 서울회원들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양 수리(경기도)에서 오대산 두루봉까지 매월 1회 아영을 하며 한강지맥 구간종주를 계획하고 있다.

* (관심있는 동문에서는 서울 신릉도 총무 (T.0343-429-1321)에 문의 바람)

회관 사무실 : 244-3000(가나상사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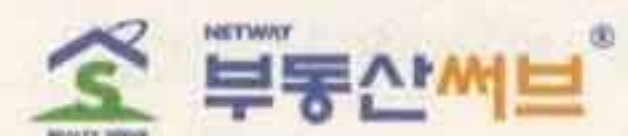
꿈이 있는 사회, 벼룩시장이 함께 합니다.

벼룩시장은 온가족이 타닥하게 보는 건전한 생활정보신문을 만들겠다는 기업이념으로 92년 7월에 창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은 생활정보신문의 선두주자로서 독자에게는 보다 나은 양질의 정보제공, 광고주에게는 효과 높은 광고매체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에는 기업이념의 실현을 통해 부산시민과 함께 한다는 기업정신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벼룩시장을 시정발전에도 타당하고 순수한 동심의 이념이 힘이 된다는 중요함을 이룩하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보의 중심에 우뚝서는 가장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벼룩시장 (주)부산벼룩시장

광고문의: 513-0220(주)

새로운 부동산 거래문화를 선도합니다.



대 표: 802-8900

중개 사업부: 806-7900

경매 사업부: 805-7678

상 담 실: 802-8555

F A X: 805-7679

http://www.netway.co.kr

부산광역시 진구 천포2동 874-1 천일빌딩 3층

31회 최 봉 근 부동산서비스부산지점장

31회 권 중 수 (주)부산벼룩시장 대표이사